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2017

December, 2016 | Vol. 12 | Issue 4.

www.wmu.edu

NEWSLETTER



- ATS 본교방문 (교회음악 박사과정 감사)
 - 단기선교팀 선교보고
 - 학술세미나 (NGO 선교)
- 중국 신학교 관계자 본교 방문
- 오엠국제선교회 스포츠 미니스트리
 - 가을학기 설교대회
-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 2016년 “교회음악 박사과정 신설” 후원의 밤
 - 오렌지카운티 열린 음악회
 - 음악학과 학생 음악회
 - 복음광고 공모전
 - 월드미션의 밤
- ‘고(故) 임동선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예배

고(故) 임동선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예배

미주 한인 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임동선 목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소천하였다. 향년 93세인 임동선 목사는 지난 1970년에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뒤 18년 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LA한인 산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은퇴 후에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에 온 힘을 다해 왔다. 선교, 교육, 봉사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동양선교교회를 성장시켜 온 임동선 목사는 65세가 됐을 때인 1988년에 성역 40주년 기념 및 은퇴 기념 예배를 드리고 원로 목사로 물러났으며 그 뒤 1989년에 월드미션 대학을 설립, 초대학장과 이사장에 취임했고 199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에 취임, 후배 양성에 힘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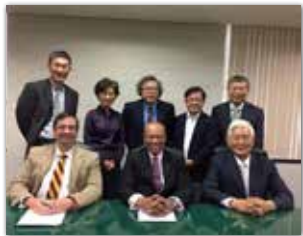
임동선 목사의 천국환송예배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그가 개척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교회 장으로 거행됐다.

이날 예배는 박형은 목사의 사회로 임종택 장로의 기도, 허경삼 목사의 설교 이귀임 권사와 월드미션대학과 동양선교교회 연합 성가대의 조가, 이정근 목사의 가족의 추모사 그리고 가족인사에 이어 이기홍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됐다.



이어 장지인 헬리우드 힐스 포레스트론에서 열린 하관 예배는 임병택 목사의 사회로 정봉모 장로의 기도, 송정명 목사의 설교 그리고 가족인사에 이어 노재룡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임동선 목사는 지난 7월 17일,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준비해 천국환송 예배는 물론이고 하관 예배까지 사회자와 설교자, 기도자, 축도와 추모사를 할 사람 그리고 조가를 부를 사람까지 순서지를 만들어 성경책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번 예배들은 임동선 목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다.

임동선 목사는 이전에도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셨다. 그래서 더욱 유가족 및 조문객들은 임동선 목사의 소천을 슬퍼했다.



ATS 본교방문 (교회음악 박사과정 감사)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본교에 음악학 박사과정 (DOC-TOR OF CHURCH MUSIC) 인가를 위한 ATS의 감사(FOCUSED VISIT)가 있었다.

지난 4월에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에 ATS의 감사 허락을 받고 이번에 두 명의 감사 위원(CHAIR: DR. WILLARD ASHLEY)이 본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 위원들이 ATS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 2월에 인가위원회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게 된다. 미주 한인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의 음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클래식과 워십 아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단기선교팀 선교보고

여름단기선교팀의 선교보고가 9월 29일 채플시간에 있었다. 포터빌에 위치한 백시칸 교회에서 사역한 3박4일 동안의 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간증과 단기선교 동아리 회장의 후속사역 계획 보고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스페니쉬 찬양으로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학술세미나 - NGO 선교

10월 4일과 6일 양일간 본교에서 “NGO와 선교”라는 제하의 학술세미나가 공개세미나로 개최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개별화와 사유화의 원인인 개교주의 현상으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교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고민하며 세미나를 재학생 외에도 일반에 공개하였다. 세미나는 한국의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 전 사무국장)이 초청강사로 강의했다.

세미나는 4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재학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교회는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진지하게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국 신학교 관계자 본교 방문

10월 10일 중국 신학교 관계자 8명이 미국을 방문하여 본교를 견학하였다. 본교의 시설들을 돌아보고 원격센터에 들러 온라인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원격학습센터는 본교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내 22개주, 그리고 세계 20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학, 기독교상담학 학위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본교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세계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웬 국제선교회 스포츠 미니스트리

오웬국제선교회에서 스포츠 미니스트리(SPORTS MINISTRY)을 담당하고 있는 BRIAN DOUB 선교사가 본교를 방문하였다. 11월10일 목요일에 BRIAN DOUB 선교사는 EXTREME SPORTS를 통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재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교 영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전하였다. 이날 초청은 미주한인 오웬국제선교회(OMKAM) 대표 김일권 선교사와 장인경 선교사(본교 MACC 재학)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 가을학기 설교대회

- 1등: 김세현 학우 (약 4:1-10 “하나님과 그의 벗 세상과의 벗”)
- 2등: 박주홍 학우 (눅 3:21-2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박면호 학우 (시 62:1-12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임은정 학우 (요 1:9-12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10월 11일에 가을학기 설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원고심사에 통과한 학우들은 모두 4명으로 M.DIV 프로그램의 박면호, 임은정, 김세현, 박주홍 학우가 결선에 진출하였다.

각각 12분의 설교시간이 주어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설교자의 열정과 전달력, 정확한 본문 주해, 구성과 시간 엄수, 그리고 현장의 적용점들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참가자 모두 박빙의 실력을 나타낸 이번 대회에서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그리고 장학금이 수여 되었으며, 2등과 3등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는 10월 22일 은혜 한인 교회에서 ‘2016년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월드미션대학교, 미주개혁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주장로신학대학교 남가주의 대표 한인 신학대학교가 모여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류와 함께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교의 연합을 돕기 위한 행사다.

2016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관련해서 ‘주님과 함께 쉬자!’를 슬로건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연합체육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김현완 학장의 개회기도, 미주장로신학대학교의 이상명 총장의 축사 그리고 본교의 임성진 부총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연합체육대회에서는 축구, 피구, 배구, 족구, 남녀 혼합 계주 총 4항목으로 단체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월드미션대학교, 미주개혁 이날 연합체육대회의 우승은 그레이스미션에서 총 420점으로 우승하였고, 본교는 370점으로 준우승, 미주장로신학대학교, 미주개혁대학교가 3, 4등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교의 최윤정 교수의 폐회기도로 2016년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는 성황리에 마쳤다.



2016년 “교회음악 박사과정 신설” 후원의 밤

11월 12일 동양선교교회 교육관 2층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후원의 밤은 한인 대학교로서는 최초로 교회음악 박사 (DOCTOR OF CHURCH MUSIC)과정을 신설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후원의 밤 순서는 25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본교의 송정명 총장이 환영사의 시작과 식사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음악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연주로 진행되어졌다. 이날 음악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독창, 재즈, CCM, 밴드 앙상블, 합창 등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시종일관 선보였다.

3부는 음악학과 현황과 비전 나눔으로 윤임상 교수가 나와 음악학과의 발전 현황과 장기학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재학생이 나와 교회음악 박사과정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힘으로써 후원자들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4부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으로 윤성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 여전도회 연합회 백현님 권사의 장학금 전달과 노진준 목사의 축도로 2016년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한인 대학교로서 최초로 교회음악 박사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시대는 세속적 음악이 무분별하게 교회음악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음악 지도자들이 단순히 미를 추구함으로써 교회음악의 본질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강한 교회음악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음악에 대한 올바른 본질을 찾고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교회와 창작음악 리더를 키우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교회음악 박사 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 오렌지카운티 열린 음악회

11월 13일 본교 음악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FIRST CHURCH OF NAZARENE (애너하임 동양선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가졌다. 클래식 성악과 합창 그리고 컨템포러리 음악을 비롯해 연주까지 다양한 장르로 꾸며진 음악회에는 타인종 교인들도 참석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 음악학과 학생 음악회

11월 17일 한길교회에서 본교 음악학과가 주관하는 제 20회 학생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학생 음악회는 목요일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되었고, 대략 1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참석했으며, 현재 음악학과 재학생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연주, 지휘, 합창 그리고 성악의 기량 높은 모습을 보였다. 본교 음악학과에는 이렇게 매년 2회씩 학생들의 연주실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한 기독교 문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학생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학생 음악회 프로그램 순서는 총 8곡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20회 연주회는 그 동안의 연주회를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의미에서 "REJOICE!" 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음악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 G.F HANDEL의 ORATORIO <MESSIAH>중 중요 아리아들, 이탈리아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들 G. VERDI의 오페라 <LA TRAVIATA>, <DON CARLO>, V.BELLINI의 오페라 <NORMA>, <LA SONNAM-BULLA>, 그리고 W.A. MOZART의 PIANO CONCERTO OP. 23을 가지고 이번 20회 학생 연주회가 진행 되었다.



..... 복음광고 공모전

지난 10월 말 마감된 복음광고 공모전에 모두 2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디자인 솜씨가 결합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며, 출품작들은 12월까지 6층 복도에 전시되고 있다. 재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 하였고,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월드미션의 밤'에서 있었다.



..... 월드미션의 밤

2016년 월드미션의 밤이 11월 22일 본교 채플실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열렸다. 한 해동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한 해를 달려 온 학우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취지로 열린 월드미션의 밤은 학우들의 숨겨진 재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별로 준비한 독특하고 발랄한 순서를 통해 월드미션인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였다.

